

# 보성군, 가축 폭염 피해 '제로화' 총력 대응

### 공무원과 축산농가 간 1대1 매칭 담당제 운영 축사 환풍기 1732대 설치·재해보험 가입 지원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보성군이 축산농가의 폭염 피해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지역 축산업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보성군은 공무원-축산농가 간 1:1 담당제를 운영하고, 사전 예방 중심의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군은 지난 7일부터 전 읍면 축산농가에 공무원을 매칭한 '폭염 대응 전담제'를 본격 가동해, 매일 가축 관리 요령 문자 발송, 마을 방송을 통한 행동 요령 안내, 읍면 합동 현장 점검을 실시하며 폭염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우선, 축사 내 고온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축사 환풍기 설치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했다. 지난해

부터 올해까지 총 9억 7200만원을 투입해 가금류 등 전 축종 1732대의 환풍기 설치를 완료했으며, 이미 전면 가동 중이다. 이는 지속된 선제 투자로, 폭염의 직격탄을 막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폭염이 본격화되기 전인 상반기부터 가축 재해보험 가입도 적극 지원했다. 군은 총 55농가에 2억 2000만원을 지원하며, 만일의 상황에 대비한 농가 보호장치를 마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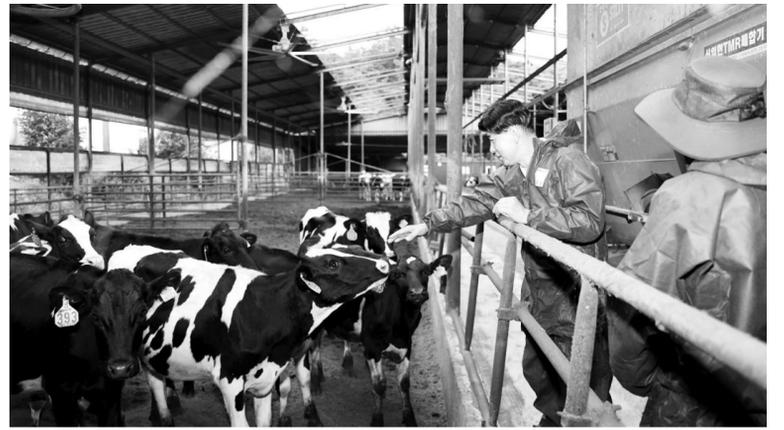
이번 폭염 대응에서 보성군은 한발 더 나아가 '가축의 고온 스트레스 완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군은 고온 스트레스로 인해 사료 섭취량이 줄고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고온 스

트레스 완화제 및 사료효율 개선제를 총 350농가에 2억 1700만 원 규모로 지원했다.

폭염 장기화가 예고되면서 군은 예비비를 긴급 투입해 추가 공급을 추진 중이며, 실시간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농가 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다.

보성낙우회 이평래 회장은 "올해처럼 고온이 지속되면 가축 피해가 속출할 수 있는데, 군에서 먼저 환풍기, 완화제 등을 지원해 줘서 큰 피해 없이 여름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축사는 곧 생계 현안이자 가축의 생명줄인 만큼, 적정 사육두수 유지와 시원한 음수 제공, 전기 시설 점검 등 평소의 세심한 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행정이 먼저 움직이는 선제적 대응을 통해 축산농가의 맘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보성축산업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김철우 보성군수가 폭염대비 축산농가를 방문하여 둘러보고있다.

## 광양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최대 250만원 지원

### 25일까지 읍·면·동사무소 신청

광양시는 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2025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3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유해야생동물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철망 울타리, 전기식 울타리, 방조망 등 피해예방 시설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시에 경작지를 둔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으로,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어업상의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다. 지원 규모는 설치비의 60%를 보조금으로, 40% 이상은 자부담으로 하며, 농가당 최대 250만원까지다.

신청 기간은 7월 8일부터 7월 25일까지이며, 신청은 경작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가능하다. 대상자 선정은 최근 5년 내 피해예방시설 지원 이력, 설치비 규모, 특용작물 재배 여부 등 세부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한편, 광양시는 지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총 148개 농가에 3억 7,7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며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도왔다. 설치 이후에도

최소 5년 이상 시설을 유지하도록 지도하며 지속적인 예방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농작물 수확기인 6월부터 연말까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 중이다. 피해방지단은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동물의 집중적인 포획 활동을 병행해 피해 저감에 주력하고 있다.

최수근 광양시 지원순환과장은 "농작물 수확기에 맞춰 피해예방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며 "많은 농가가 기간 내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 지역의 매력 담은 순천 역세권 마을지도 완성

### 주민·상인·관광객 등에 배포

순천시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4주간 진행된 '역세권 마을지도 만들기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마을지도도를 배포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순천 역세권 일대 주민과 상인 등 지역 구성원이 참여해 ▲역세권 관광명소 및 맛집 탐방 ▲도보 관광코스 기획 ▲마을지도 디자인 작업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친 주민참여형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직접 지역을 걷고, 의견을 나누며, 순천역 주변의 매력을 담은 마을지도도를 공동 제작했다. 완성된 마을지도는 부채 형태로 제작되어 실용성과 지역성을

동시에 살렸으며, 역세권 일대 주민과 상인, 관광객에게 배포될 예정이다. 또한 향후 역세권 행사 및 연계 프로그램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한 참가자는 "마을지도도를 함께 만들면서 단순히 지역을 알아가는 것을 넘어 이웃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경험을 쌓을 수 있어 좋았다"며, "주민 간 유대감이 깊어지고, 공동체가 한층 더 활발해졌다"고 소감을 전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은 주민이 직접 지역의 가치를 발굴하고 콘텐츠로 엮어낸 의미있는 시도였다"며 "주민 중심의 도시재생을 실현하고, 협력적인 커뮤니티 형성과 지역 정체성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 시원한 생수 한병으로 무더위 이겨내세요

### 고흥 봉래면·구례 간전면 무료 생수냉장고 설치 운영

최근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고흥과 구례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생수 냉장고가 설치돼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화제의 지역은 고흥 봉래면과 구례 간전면으로 올해 처음으로 생수냉장고를 운영하게 됐다. 생수냉장고는 일반 주민들 뿐만 아니라 야외 노동자와 어르신 등 폭염에 취약한 대상에게 청량제와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흥 봉래면은 무더위에 대비해 지난 10일부터 면사무소에 일명 '봉래면 오아시스' 냉장고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이 냉장고에는 500ml의 페트병 생수가 가득 채워져 있으며,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보다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당 가져갈 수 있는 수량을 하루 1개씩으로 제한했다.

봉래면은 당초 여름에만 가동할 예정이었으나, 주민들의 반응이 좋아 사계절 멈춤 없이 운영키로 했다.

이로써 '봉래면 오아시스'는 무더위로 쌓인 갈증과 피로를 덜어낼 수 있는 지역의 '청량제 창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1800여명의 봉래



고흥군 봉래면 면사무소에 설치된 '봉래면 오아시스'. 구례 간전면 냉장고 내부 모습.

면민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어르신들은 더위를 피해 잠시 쉬었다 갈 수 있어 더욱 반기는 표정이다.

'봉래면 오아시스'처럼 고흥군에는 총 3곳에서 생수냉장고가 운영되고 있다.

이해중 봉래면장은 "무더위에도 민원을 위해 면을 방문해야 하는 주민들의 갈증을 해소하고, 건강하게 폭염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생수냉장고를 운영하게 됐다"면서 "앞으로 냉장고에 담을 내용물도 생수 뿐만 아니라 계절에 따른 다양한 먹거리도 검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고흥=주자중 기자 gjju@kwangju.co.kr

또 구례 간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주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생수나눔 냉장고'를 내달 말까지 백운복지관 1층 공동체 카페에서 운영한다.

'생수나눔 냉장고'는 내달 31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평일에는 냉장고 문을 열지 않는다.

이미정 간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은 "작은 생수 한 병이 더위 속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다. 주민 모두가 함께 나누고 돌보는 따뜻한 문화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 해룡 상삼사거리~왕지2지구 고압 송전선로 지하매설 완료 순천 지붕로 6km 도로 개통

순천시가 도심권 고압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의 지하 매설구간 공사를 완료하고 지난 11일 지붕로 도로를 정상 개통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2월 착공한 이번 사업은 해룡면 상삼사거리에서 왕지2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까지 지붕로를 따라 345kV 및 154kV 고압 송전선로 총 6km 구간을 지하에 매설하고 지상 송전탑을 철거하는 사업이다.

시는 이번 한국전력공사의 지중화사업을 통해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높이는 한편, 도심 경관 개선과 생태도시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장기간 공사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과 피로감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질서 있고 성숙한 시민들의 협조로 지하 매설구간의 도로 공사를 순조롭게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시민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이번 송전탑 철거는 10여 년 넘게 지역 주



순천시 지붕로 구간 고압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의 지하 매설 공사를 완료하고 지난 11일 도로를 정상 개통했다.

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숙원사업으로, 순천시와 시의회, 시민들의 노력 끝에 결실을 맺게 됐다. 전체 사업은 고압의 전력케이블 인입과 지상에 노출된 송전탑 철거 등 전기 부문 공정을 거쳐, 2026년 7월 최종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 광양시장배 청소년 e스포츠 대회 성료

### 참가 대상 확대 신청자 3배 몰려

광양시장배 청소년 e스포츠 대회가 지난 12일 광양국민체육센터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광양시가 주최하고 광양시 e스포츠협회가 후원한 이번 대회는 지역 내 e스포츠 인재를 육성하고 건전한 게임문화 정착과 게임 산업 기반 조성을 목표로 열렸다.

올해는 참가 대상이 광양 관내에서 전남 도내 청소년으로 확대되면서, 지난해보다 3배 이상 많은 신청자가 몰렸다. 특히 리그 오브 레전드(LoL)와 FC온라인 종목에선 단일 학교팀이 입상하면 전국대회 본선 진출권이 주어지는 '엘리트 포인

트' 제도가 처음 도입돼, 전남 청소년 게이머들의 투지를 불태웠다.

경기 결과, 리그 오브 레전드 종목은 '지구젤리'팀, FC 온라인 종목은 '시모네 인자키'팀이 각각 1위를 차지했으며, 가장 큰 주목을 받은 발로란트 종목에서는 '이탈리안 브레인롯'팀이 정상에 올랐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올해는 지난해보다 참가자의 관심과 수준이 크게 향상돼, 전국 e스포츠 대회로 나아가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제2의 페이커(T1, 이성혁 선수)가 나올 수 있도록 e스포츠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활동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여수시가 공공주도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 일환으로 중국 광둥성과 푸젠성을 방문, 견학했다.

## 여수시, 중국 해상풍력단지 벤치마킹 견학

### 어민단체 등 광둥·푸젠성 방문

여수시가 지난 7일부터 6일간 '공공주도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주민·어민단체와 함께 중국 광둥성과 푸젠성 일대 해상풍력단지를 방문해 해외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했다.

여수시 기획경제국장을 단장으로 한 이번 방문단은 거문도수협 조합장, 여수수산인협회장 등 어업인대표 7명과 삼산면·남면·화정면 주민대표 6명, 여수시의회 의원, 녹색에너지연구원, 국립목포해양대학교 교수 등 총 26명으로 구성됐다.

중국은 2025년 2월 기준 전 세계 해상풍력 발전 용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광둥성과

푸젠성 일대에서는 해상풍력단지 내에 가두리 양식장과 해조류 양식장, 부유식 단지 내 양식장 등을 운영하고 있다.

방문단은 중산시청을 비롯해 터빈공장인 밍양 스마트에너지 본사, 후호 해상풍력단지 내 가두리 양식장(CGN 운영), 푸저우시 공기업 동방전기 지사, 평탄중합실험구, 평탄 해상풍력 관광단지 및 관계센터 등을 견학했다.

한편, 여수시는 산업통상자원부 지원을 받아 3GW 규모의 공공주도 해상풍력단지를 개발 중이며, 오는 2026년 3월 이후 전국 최초 국가주도사업 '예비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